

“태도 또한, 너의 실력인거야!”



“팀장님, 제 평가 경과가 왜 B등급이죠? 과장 중에선 실적이 상위 10% 안에 들었는데 말이죠.”

음, 우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만큼 조치를 못 한 인사팀과 나에게 약간은 책임이 있다. (이건 나중에 따로 다뤄볼 주제다) 사내공지와 설명회를 했었지만, 강 대리 네가 알아먹었을 때까지 설명을 반복했어야 했는데 말이다. 고응~

네 말이 틀리진 않는다. 분명 정량평가를 구성하는 KPI(Key performance index)에선 우수한 결과가 나오긴 했다. 그런데 왜 B등급이냐고? 평가에는 정성평가도 있기 때문이다. 정성평가로 '역량'을 평가하는데 역량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'기초 실력'으로 이해하면 된다.

이 기초 실력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. 지식, 기술, 태도. 지식이나 기술은 금방 와 닿지? 지금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말한다. 다만, '태도'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. 일단,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해낸다는 보장은 없다. 왜냐면 안 할 수도 있거든. 태도는 행동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. 그래서 따로 평가하는 것이다.

결론적으로 강 대리, 꼭 기억해라. “너의 태도 역시 너의 실력이다. 너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, 지금 설사 실적이 나온다 해도 지속한다는 믿음을 가지기 힘든 것이다. 실력은 실적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.”

I 필자: 에밀 팀장 in 팀장클럽(café.naver.com/teamleadersclub)